

정보사회의 기업문화

박 한 규 교수

연세대 전파공학과

서울, 경인 지역 정보화 추진협의회 의장

DB Focus

1. 서론

금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과학기술의 급격한 진보가 그동안 산업사회의 틀속에서 유지되어 온 인류사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놓고 있다.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인간의 육체와 노력, 태양에너지 및 물의 결합을 통한 수경재배에 의해 곡물이 생산되고 이를 식용으로 이용하여 부산물을 주거용 연료로 사용하게 되고, 이의 결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발효되어 다시 수경재배의 원천으로 흡수되는 환류 시스템(Recursive System)이 구성됨으로써 토마스 룬이 말한 사회전체의 엔트로피가 최소가 되는 패러다임(paradigm)을 이루어 안정된 사회를 구현하였다.

한편 현재의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환류 시스템을 구성하지 못해 사회의 무질서서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보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비대하게 분산되어 있는 각종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역할과 기능의 최적화를 이루고, 정보기술체계의 네트워크를 통한 완벽한 환류 시스템을 구성하여 엔트로피의 증가가 최소인 안정된 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다.

앨빈 토플러의 '제 3의 물결'이나, '권력이동'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농업시대나 산업시대에는 통지나 자본이 힘의 원천이었지만 이제는 정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핵심이



될 것이다.

이와같이 정보사회는 컴퓨터와 통신을 비롯한 모든 정보통신 수단을 통하여 정보를 생산, 전송, 유통하는 사회이며, 이러한 정보가 중요한 자원이 되어 경제, 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한편, 정보사회로 가기 위한 정보화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들 수 있으며, 이 중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정보화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양분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산업 분야의 육성을 소홀히 함으로써 대외 선진국에의 예속화가 심화될 경우, 향후 경제를 비롯한 사회, 문화적인 예속화도 뒤따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언어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정보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중국, 일본, 한국 세나라를 비교할 때, 상형문자인 중국은 그 많은 물자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본은 세나라를 비교할 때, 상형문자인 중국은 그 많은 문자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본은 퍼스널 컴퓨터를 퍼스컴이라고 하듯 외래어를 약자로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외래어를 그대로 쓰면 하나의 문장처럼 길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약자화함으로써 정보처리 속도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일본도 문자적으로는 정보사회로 가기에 그 만큼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한국은 표음문자이므로 외래어의 표현이 쉽고 다양하므로 정보사회로 나아감에 있어 언어상으로 우월하다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상의 장점과 우수한 개발인력을 십분활용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확립은 선진 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는 이제 그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없는 대세이고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만이 국가의 미래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사회의 도래는 우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산업사회가 서구적 합리주의와 개인주의에 적합한 사회였다면 정보화사회는 임기응변에 강하고 개인보다 집단을 중요시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에 보다 잘 어울리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의 각 분야에 걸쳐 정보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화사회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 정부도 국가간 기간망 구축 및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기업도 정보통신 산업을 미래의 최고 전략 산업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화의 파고가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

는 이때 기업은 물론 모든 국민 개개인은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보화와 기업환경의 변화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앞날에 대한 예측의 불투명함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기업 경영전략의 전제조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단순히 경제정세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 시사문제를 포함한 국제정세의 동향과 급속한 기술진보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넓은 시야에서의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다.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많은 정보의 수집뿐 아니라 그 배경에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으며 또 그 힘을 낳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최근, UR협상이 궁극에 가서는 타결되었고 거대한 EC공동시장의 탄생과 함께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에 국경이 없어지는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가 도래되었다. 관세와 무역규제에 의한 장벽이 낮아지고 세계시장이 하나가 되어 결국 이에 적극 대처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결국, 정보사회에서의 경제성장은 정보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옛날에는 필요한 정보를 소문이나 사람의 전달에 의한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정보기기를 통해 접하게 되며 이러한 추세는 크게 확산되고 있다.

실례로, 기업내부전산망(LAN)이 다른 기업과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기업간전산망이 확대 발전되면서 국내에서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도입이 늘어가고 있다.

전산자료교환체계의 영문약자인 EDI는 기업간의 표준화된 거래서식을 컴퓨터통신으로 교환하는 통신형태로서 전산망을 통해 기업간 정보를 교환할 경우 기존의 통신수단인 우편이나 전화, 팩시밀리 등을 사용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정확

성과 신속성을 획득할 수 있다.

국내업체에서도 이러한 장점을 인식하여 최근 2~3년 사이에 이를 도입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자동차회사의 경우 본사와 공장간 사내전산망을 형성하고 협력회사와 전산망을 연결하여 본사의 메인 컴퓨터는 각 공장에서 입력되는 부품요청서를 재빨리 분류한 뒤 이를 협력업체에 주문한다. 이 때 본사에서는 협력업체의 부품재고 현황을 미리 파악해 두었다가 각 업체 실정에 맞는 필요물량을 제 때에 주문, 공급받음으로서 공급 지연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사전에 막는다. 협력업체들도 자동차회사의 생산계획을 이 통신망을 통해서 수시로 파악하여 자사의 생산을 조절하여 재고과잉을 방지한다.

또한, 각종의 자동화 현상을 통하여 경비절감의 효과를 이루고 있다. 가사자동화,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판매자동화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경비절감 이외에도 부수적인 잇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먼저 가사자동화는 여가 선용의 기회를 늘려주며, 사무자동화는 신속, 정확도를 높여준다. 한편 공장자동화는 효율향상 및 위험한 작업환경의 개선을 가능케 하고 판매자동화는 유통경비의 절감을 사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누리게 한다. 이제까지 산업화 사회의 특징인 어셈블리 라인 작업형태에서 벗어나서 유통성 있는 근무형태를 가능하게 한다. 소품종 다량생산에서는 많은 노동자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주로 단순노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었고 이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이 자주 거론된 문제이었다. 그러나,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처리의 성능 향상으로 시간제 근무, 시차제 근무 또는 자택근무가 가능하게 되었고 산업화 사회의 특징인 분업화 대신에 통합화된 활동형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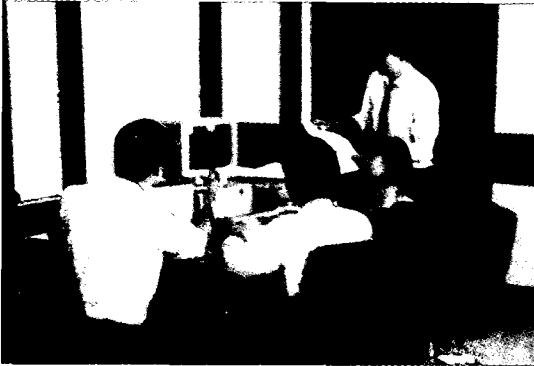
이와 아울러 경영체제의 변화도 괄목할 만하다.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통하여 자사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며 경쟁사의 우위를 격감시키는 조직적 경영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이 심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은 과거 30년동안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MIS의 도입에서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전산화작업이 급여계산, 재고관리, 인사관리, 자재수급관리, 재무제표, 주문전표처리등에 불과하고 보다 적극적인 MIS 도입은 주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독창성보다는 모방성에 근거를 둔 기업풍토에 큰 원인이 있으며, 경영진의 인식부족으로 하드웨어만 구입하면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물질”중심의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이들에게 “정보”중심의 정보 마인드가 확인되지 않는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공장자동화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공장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사무업무의 생산성은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무자동화의 실현이 매우 절실한 요망이 되고 있다.

사무자동화가 실현되면 멀티미디어용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하여 각 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워크스테이션을 통해 직접 문서의 작성, 편집, 보관, 검색, 배포가 가능하고, 문안작성도 문자 입력방식에서 음성입력까지 가능하며 한글 한자 및 그림이 혼합된 문서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작성된 문서는 전자화일에 보관되어 필요시 즉시 검색할 수 있으며 배포가 필요한 경우 전자사서함 시스템을 이용, 원하는 부서에 단시간에 송신할 수 있게 된다. 각 부서에서는 정기, 비정기 보고양식을 업무별로 표준화하여 해당양식에 맞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해당관리자가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의사 결정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일반문서에 대한 결재도 이제까지의 서류상의 결재방식을 탈피하고 암호나 ID카드로 직접 결재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 질 것이다. 업무처리를 위한 작업계획이나 개인활동 계획을 컴퓨터에 등록시켜 놓음으로서 일정의 중복이나 누락을 막을 수 있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임시작업이나 행사, 회의일정의 조정을 워크스테이션에서 쉽게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일정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회의도 컴퓨터에 연결된

대형 스크린이나 전자흑판 등을 이용, 업무 브리핑 및 상호의견을 교환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앞으로는 컴퓨터나 광디스크등



적절한 사무자동화기기를 사용해서 종이를 가능한 적게 쓰는 방식으로 전환, 종이없는 사무실화 및 검색시간, 보관공간등을 절약하여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아울러 사무실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보사회에서 기업의 대책

이와 같이 격변하는 환경속에서,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살아남고 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할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풍요로운 생활환경의 형성과 활력있는 쾌적한 삶을 구축하기 위한 기업의 정보화 전략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컴퓨터등의 이용 보편화에 따라 일상적 의사결정은 주로 정보시스템에 의존할 것이며, 아울러 경쟁의 요체는 '정보의 이용능력'에 좌우될 것이므로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수집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해석,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의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가 충족됨에 따라 새로운 욕구의 탐색과 충족을 위한 고도의 마케팅 전략(다양화, 개성화, 고품질화, 국제화)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화 추세에 따라 기업의 국제간 협력이나 경쟁이 증대될 것이며, 범세계적 네트워크 형성이 촉진될 것에 대비한다. 광범위한 정보망

의 등장으로 중간상의 필요성은 축소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추세가 확대될 것이다.

네째,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보다는 전문화 육성전략이 필요하며, 기업조직은 보다 분권화, 비관료화 되어야 할 것이고 대기업이라도 각 단위 조직이 상당한 자율권을 갖는 네트워크의 형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여러 정보·통신 수단의 개발을 주시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매체를 개발하여 기업경영에 적용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과감한 연구개발비의 투자와 타기업의 정보화에 대해서 민감한 자세를 갖추고 원가절감이나 부가가치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정보산업은 기존의 산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하면서 인간의 지속적인 생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산업사회의 결과로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은 점점 누적되어 인간의 특별한 노력이 없는 한 21세기에는 파국적인 현상이 도래할 수도 있다. 특히 각종 천연자원의 급속한 고갈같은 것은 경제 성장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은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정보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자원탐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인간을 위한 정보, 인간을 위한 통신이 결합하여 만드는 정보화사회는 물질이나 에너지에 의존해 왔던 산업사회를 묻어 버리는 새 문명의 사회로서 이제까지 인류 역사가 향유했던 어떤 시대보다도 고도화된 인간의 지가(知價)가 꽃피는 사회이다.

또한 개성이 두드러지고 다양한 심미적인 감각과 균형잡힌 가치관이 생성되는 정보화사회는, 마음이 열리고 사람과 사람의 지적인 평등이 널릴 베풀어져 기계화된 산업사회에서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는 사회다. 따라서 '정보·통신, 인간의 융화'는 모든 이의 최상의 개념인 것이다.